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 | | |
|--------|----------|----------|
| 주일1부예배 | 본당 | 9:00 am |
| 주일2부예배 | 본당 & 라이브 | 11:00 am |
| Youth | 아가페홀 | 11:00 am |
| 유초등부 | 아가페홀 | 11:00 am |
| 영유치부 | 본당 지하 | 11:00 am |

| | | |
|------------|------|----------|
| 화요소망학교 | 아가페홀 | 11:00 am |
| 수요대학/기도회 | 본당 | 8:00 pm |
| 새벽예배 (화-토) | 본당 | 6:00 am |
| 청년부예배 (토) | 아가페홀 | 12:30 pm |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Matthew 11:28-30]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담임목사 | 김성직 목사 | 은퇴장로 |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
| 방송/청년 | 오정훈 목사 | | 이덕흥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
| 소망학교 | 이신웅 전도사 | 찬양인도 | 황규식 |
| 중고등부 | 문강한 전도사 | 지휘자/서무 | 박은실 |
| 유초등부 | 청빙중 | 반주자 | 노윤실사모(1부,새벽) 김은화 이화니(2부) |
| 영유치부 | 김성은 사모 | 번역/통역 | 김예람 이화니 송명신 |
| 사무장로 | 백형수 윤순기 | 방송 | 조준한 Daniel Sewell |

열방을 섬기는 이들

| | | | |
|-----|-----|--------|---------|
| 태 국 | 배중원 | 요 르 단 | 설총호/전경원 |
| 중 국 | 이주애 | 도미니카 | 이광호 |
| 케냐 | 이영규 | 아파치인디안 | 강원용 |
| 칠레 | 황신재 | 키르키즈스탄 | 바나바/다비다 |
| 모로코 | 김영목 | | |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Agape Hall (314)786-5018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LENT

...

사순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5

3.26.2023

주와 동행하는 인생

1부 9 AM 2부 11:00 AM

LIVE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 | |
|-----------|-----------------------------|
| 경배와 찬양 |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 * 기원 | 인도자 / 김성직 목사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성서교독 | 교독문 128번 사순절 Lent (5) |
| 참회의 기도 | 이사야 Isaiah 53:5 |
| 찬송 | 찬 25장 면류관 벗어나서 다같이 |
| 기도 | 윤순기 장로 |
| 광고 | 인도자 / 김성직 목사 |
| 봉헌 & 봉헌찬송 | 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다같이 |
| 봉헌기도 | 인도자 / 김성직 목사 |
| 성경봉독 | 로마서 Romans 5:1-11, NT p 245 |
| 말씀 | 주와 동행하는 인생 / 김성직 목사 |
| Sermon | The Life with the Lord |
| *결단의 찬양 | 오직 주만이/ 다같이 |
| * 축도 | 김성직 목사 |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명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랫동안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시달렸습니다. 영지주의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철학 사조입니다 이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도 그 틀에 맞춰서 해석함으로써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요일 4:2 참조).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말도 그들에게는 우스웠습니다. 이들에 대한 반박이 사도신경에도 여러 구절에서 나타납니다만, ‘장사되셨다’는 이 구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 Hell?

영어 사도신경에는 이 음부를 지옥(Hell)로 번역했습니다. 음부에 해당하는 마땅한 말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부를 Hell로 번역하는 순간 의미가 모호해져버렸습니다. ‘지옥’은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음부는 단지 무덤이며, 그 무덤이 상징하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지옥까지 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심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 같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다른 견해들

우리가 내린 결론으로 충분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예수님이 겪은 ‘지옥 같은 고통’. 예수님의 영혼이 당한 고통은 ‘지옥과 다름없는 고통’이다. 그래서 이를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로 고백한다.”

칼뱅이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이 견해를 따르면 ‘음부’를 ‘지옥’으로 번역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에서 이미 예수님의 고난을 다 설명했는데, 무덤에 묻히심 다음에 다시 그 고난 전체를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2) “지옥에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다.”고 보는 견해.

루터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견해는 사도신경 전체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 이미 승리를 언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갑니다.

3) 천주교의 견해, “연옥()”

사실 이 ‘음부에 내려가심’에 대해 기독교가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바로 천주교의 견해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의 변두리인 연옥에 가서, 거기에 갇혀있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로 인도하셨다고 봅니다. 그 영혼들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기들,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간단하게 반박하자면, 이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천주교는 이 ‘음부’를 ‘저승’이라고 번역합니다.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이구요.

우리말 ‘저승’이 과연 이 ‘음부’를 담아내기엔 충분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 구절은 빼야 할까요?

아닙니다. 온 세계 교회가 거의 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초창기에 이 구절이 포함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에 찬송가를 만들면서 침묵한 사도신경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이 가진 ‘저승’에 대한 정서와 유사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뺐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반대 때문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성경으로 풀어난 사도신경 (14)

수요대학에서 나누었던 “성경으로 풀어난 사도신경 (이운연 지음)”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곳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11 과 음부에 내려가심 [사도행전 2:24]

2. 예수님이 내려가신 음부그러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음부가 무덤을 뜻한다면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셨다는 말인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 고백을 해야 할까요?

먼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이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50: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에 장사[매장] 되셨고, 제 삼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로 사망의 힘에 눌려 계셨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죽으신 후에 무덤에 내려가신 상태, 즉 죽음의 힘에 꼼짝없이 묶여 계심. 이것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사망의 고통’이라 불렀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23-

24)”

* 음부에 내려가심, 더 깊은 의미

예수님께서 왜 건장한 청년, 혹은 장년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태어났어야 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36문답이었지요?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 줍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라,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벌 받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마지막 자리, 즉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단순히 무덤에 들어가지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무덤에 묶여 계셨습니다. 음부에 갇혀 계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그 죽음의 권세에 눌리고 갇힌 채 썩어가야 할 가련한 죄인을 거기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음부’, 곧 무덤의 울무에까지 내려가서 갇히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받으시기 위함이며 동시에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결코 뺄 수 없는 중요한 고백임이 느껴지시나요?

3. 장사()되심과 ‘음부에 내려가심’ 연결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음에 ‘장사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무덤’의 권세에 묶여 계심을 고백하면, 순서상 적절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착각이 아님을 증

성시교독

교독문 128번 사순절 Lent (5)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지만 꺾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같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와 동행하는 인생, 롬 5:1-11

< 본문 속으로 >

1.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릅니까? (1절)
2.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2절)
3. 우리는 어떤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3절)
4. 우리가 아직 어터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릴 위해 죽으셨나요? (6절)

SATURDAY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십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SUNDAY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

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 서도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배상진 장로님: 교통사고로 등에 골절을 입으셔서 보호대 착용 중입니다.

김기봉 장로님: 현재 키모(chemotherapy) 치료 중입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건강회복중입니다.

이소연 자매님 딸 엘라: 어릴적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앓고 있습니다. 발목과 고관절 대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길자 권사님: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MONDAY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1.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THURSDAY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TUESD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FRIDAY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주와 동행하는 인생은, ‘예수로 말미암아 참 된 화평을 누리는 인생’으로, 유일한 길되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어디서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랑의 수고로 감당해 나갑니다. 나는 진정 유일한 통로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롬을 누리는 인생인지, 또 주님의 능력으로 내게 맡겨진 이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2. 주와 동행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은혜의 길에 들어왔으니, 환난 속에도, 오직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연단되어서, 늘 예수 소망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진정한 영광과 기쁨의 성도가 됩니다. 실로암 인생의 그 믿음의 눈이 떠지듯이 나의 관점은 지금 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행여 환난 중에는 이게 잘 되지 않고 있는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소망소식

예배를 섬기는 이들

| 3/26 | | 4/2 | |
|-------|----------------|-------|------------|
| 대표 기도 | 윤순기 장로 | 대표 기도 | 윤순화 장로 |
| 교회 안내 | 김귀자 집사 | 교회 안내 | 김동한 집사 |
| 설교 번역 | 이화니 자매 | 설교 번역 | 김예람 자매 |
| 애찬 담당 | 모로코 구역 | 애찬 담당 | 키르키즈스탄 구역 |
| 교회 청소 | 키르키즈스탄 구역 (3월) | 교회 청소 | 케냐 구역 (4월) |

향기로운 예물 3/19/2023

| | | | | | |
|-------------|---------|------|-------|-------------------|---------|
| 주일 | \$1,032 | 구역선교 | \$390 | 주일학교/유스 | \$0 |
| 십일조 | \$2,203 | 건축 | \$0 | 특별헌금 -요르단 | \$1,500 |
| 감사 | \$820 | 첫열매 | \$0 | | |
| 선교 | \$0 | | | | |
| 헌금총액 | | | | \$5,945.00 | |

헌금 외 수입금

| | |
|-------------|-------------------|
| 합계 | \$0 |
| 입금총액 | \$5,945.00 |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로마서 성경필사'

예전에 요한복음 성경필사 했던 그대로 이번에는 로마서를 필사해서 세상에 딱 한 권 밖에 없는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기간을 2월 첫째 주일부터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잡았습니다. 개인의 노트로 필사하셔도 되고, 교회에 필사노트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주일 예배 안내위원

주일 예배 안내위원을 온 성도님이 함께 동참하여 섬기게 됩니다. 교회 주소록 순서대로 예배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과 장기 결석 성도님들 제외한 명단이 매 주 주보에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 힘드신 분들은 예배부장 (박은실 권사)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안내수칙은 요람 P 31 참조)

소망학교 사진 전시회

오는 4월 소망학교 주체로 사진과 그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 본인의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전시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이신웅 전도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시회는 4월 18(화)-23(주)일 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1/4분기 제직회

오늘 식사 교제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2023년 요람

일단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 외부에는 성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

- +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황기순 권사님의 아들 제임스가 지난 3월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는 추후 가족장으로 진행됩니다. 유가족들 위로해주시고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구역 독수리 구역 (공석우, 김혜연 구역장) 위해서

기도가정 손 현 (조희수) 교우 가정 위해서

교회행사

2월 5일 (주)
~ 5월 28일 (주)
'로마서 성경필사'

3월 26일 (주)
1/4분기 제직회

4월 7일 (금)
성금요일 예배
(8PM)
성찬식

4월 9일 (주)
부활주일